

피부로 느끼는 미래 콘텐츠...메타버스 '한눈에'

문화콘텐츠 종합 전시회 '2021 광주 에이스페어'

전남저작권서비스센터...관련 산업 발전 견인 눈길 AI·증강·가상·혼합현실 이용한 신제품·기술 다채

지난 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막을 연 국내 최대 규모의 문화콘텐츠 종합 전시회인 '2021 광주 에이스 페어 (Asia Content & Entertainment Fair in Gwangju, 이하 에이스페어)'가 12일 그 막을 내렸다.

문화체육관광부, 광주시가 주최하고 김대중컨벤션센터,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디자인진흥원, KOTRA가 주관하는 에이스페어는 경쟁력 있는 문화콘텐츠 발굴 및 국내외 콘텐츠 판매시장확대를 목표로 개최됐다. 올해 16번째를 맞이한 에이스페어는 '메타버스, 그 이상의 콘텐츠'를 주제로 개최됐다.

페어에는 싸이더스, 로로젠, 이닷, 스노우닥, 룩시드랩스, 페이스북 등 메타버스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들이 대거 참여해 각종 신제품과 기술을 선보였다. 이외에도 340여개의 문화콘텐츠 라이선싱 업체가 참가해 440여개 전시 부스에 신제품과 신기술을 선보였으며, 국내외 유명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콘텐츠 개발 컨퍼런스(CDC), 시민 참여형 부대행사, 방송, 이벤트 등 다채로운 행사들도 전시장 곳곳에서 열렸다.

10일 찾은 에이스페어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눈에 띄었던 곳은 바로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남저작권서비스센터' (이하 센터)의 저작

권 부스였다.

센터는 저작권 관리에 취약한 도내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다양한 저작권 서비스 지원, 권리보호와 분쟁예방에 앞장서는 동시에, 저작권 인식 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저작권 공정 이용 문화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센터는 광주 에이스페어에 다양한 콘텐츠 기업이 참가함에 따라 센터의 역할과 다양한 지원 시스템을 소개하기 위해 이번 페어에 참가했다. 기업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OX퀴즈, 토크 등을 통한 저작권 퀴즈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했다.

이 날 센터의 OX퀴즈에 참여한 김민주(20)씨는 "사실 저작권이 우리 생활 속에서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기업들의 먼 이야기로만 느껴졌는데 퀴즈를 풀어보니 사실 우리와 밀접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앞으로 무슨 일이 있던 간에 저작권에 대해 한번쯤 다시 생각해 볼 만한 계기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준근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에이스페어 뿐만 아니라 앞으로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등 저작권 인식 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역 기업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저조했던 저작권 기반 산업의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동관 맨 앞에 위치한 메타버스 체험관



지난 9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한 '2021 광주 에이스페어'에서 개막식 참석자들이 메타버스관에서 VR 기기로 가상현실에서 회의와 쇼핑등을 할 수 있는 VR 메타버스 플랫폼 호라이즌을 체험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도 인기였다. 메타버스를 주제로 한 이번 페어에 걸맞게 메타버스를 체험하려는 관람객들의 수도 한 많았다.

메타버스를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모두 모아둔 이곳에서 싸이더스는 가상인간 로지를 선보였다. 가상인간인 '오로지'는 약 3만4,000명의 팔로워를 가진 인플루언서로, 지난해 9월 SNS를 통해 실제 인간처럼 활동했으나, 같은 해 12월이 되어서야 가상 인물임을 공개해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인스타그램에서 로지를 처음 봤다는 이

준재(27)씨는 "처음에는 그냥 유명한 인플루언서라고만 생각해서 가상인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각하지 못했다"며 "그런데 페어에 참가해 로지를 가상으로 보니 정말 가상의 인물이라는 게 실감나면서도 메타버스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체감하게 됐다"고 말했다.

로로젠은 증강현실(AR)을 기반으로 옷이나 악세사리 등을 구매 전 직접 착용해 볼 수 있는 콘텐츠를 선보였다.

이 체험에 가장 큰 흥미를 느꼈다는 조예원(22)씨는 "이런 기술이 상용화될 경

우 옷을 구매할 때 실패할 확률도 적어짐과 동시에 맞춤형 쇼핑까지 가능해질 것 같다"며 놀라움을 감지하지 못했다.

룩시드랩스의 가상현실(VR)환경에서 뇌파를 측정할 수 있는 기기 '루시'도 차세대 신기술로 주목받았다.

루시는 시선, 뇌파를 활용해 경도 인지장애의 위험에 노출된 노인들의 질환 등을 조기 발견, 인지 건강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VR 인지 기능 평가·훈련 시스템이다.

페이스북은 가상공간에서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인 '호라이즌

워크룸'을 선보였다. 공간 제약 없이 다양한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것이 특징인 이 워크룸은 업무를 넘어 데이트·공연 및 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 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부스도 인상적이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혼합현실을 3D홀로그램으로 구현한 이른바 '홀로렌즈2' 체험존을 마련, 헤드셋을 착용하면 눈 앞에 나타나는 가상현실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해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오지현 기자

"중소기업 저작권 애로 서비스센터로 문의하세요"

권리보호·분쟁예방 지원...교육 통해 인식 제고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박지영 선임

지난 2015년 개소 이후 지역 저작권산업의 혁신 성장 주도와 동시에 지역 중기의 저작권 관련 애로사항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이준근)이 운영하고 있는 전남저작권서비스센터(이하 센터)는 2015년 개소 이후 지역 저작권산업의 혁신 성장을 주도하며 핵심 거점 기관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 '전남저작권서비스센터'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전남저작권서비스센터는 문화체육

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전남도의 지원을 받아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남저작권서비스센터는 저작권 관리에 취약한 도내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다양한 저작권 서비스 지원, 권리보호와 분쟁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저작권 인식 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저작권 공정 이용 문화 조성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광주에이스페어에서 저작권 인식 확산 캠페인을 진행하게 된 이유가 있다면.

▲광주에이스페어는 약 200개사의 콘텐츠기업이 참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문화콘텐츠 마켓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모인 곳이니만큼 다양한 기업들에게 저작권서비스센터의 역할과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 소개하고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기업 뿐만 아니라 일반인, 학생 등 저작권 취약계층을 상대로 퀴즈풀이 이벤트 등을 기획해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립하고자 했습니다.

-전남지역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토로하는 저작권 관련 애로사항이 있다면.

▲저작권 등록, 저작권 권리관계, 법률 저촉 여부, 저작권 분쟁 등이 가장 빈번한 문의사항입니다.

-지역 중소기업 애로사항 개선을 위해 저작권서비스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있다면

▲저작권 실무 상담부터 맞춤형 교육, 법률자문, 계약서 검토를 위한 전문가 지원, 저작권 등록 비용 지원 등 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 저작물을 활용한 시제품 제작, 마케팅 지원 등 기업들의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위한 다양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인식확산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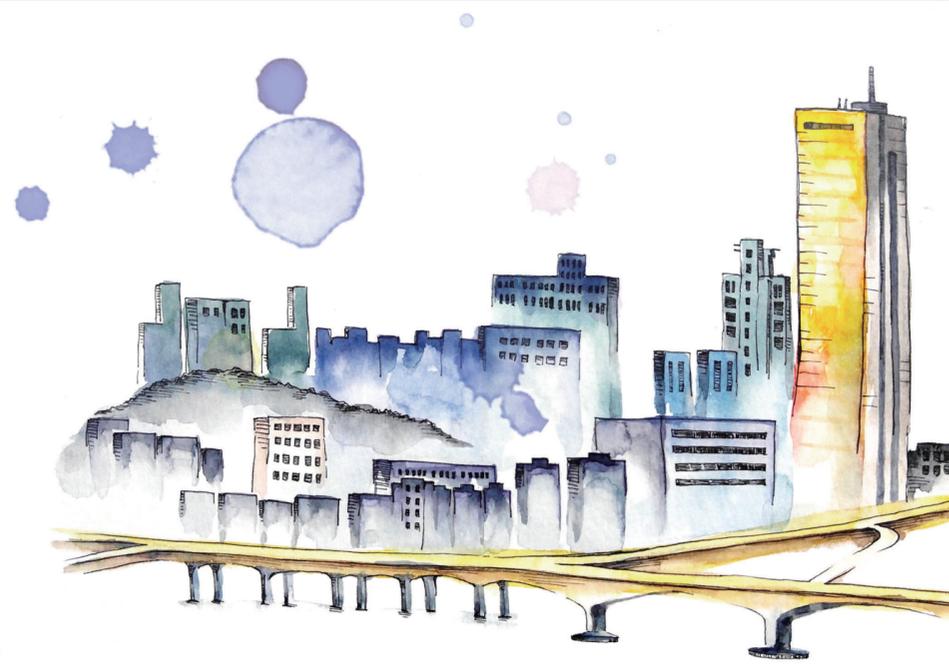
▲저작권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저작권 교육이 가장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센터는 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업 지원센터와 연계,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저작권서비스센터는 동부권인 순천에 위치한 전남콘텐츠코리아랩, 중부권인 나주에 위치한 전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 서부권인 목포에 위치한 목포벤처문화산업지원센터와도 협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는 광양농업기술센터, 강진농업기술센터, 해남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하여 농업인 대상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는 등 지자체와 연계하여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2015년 센터 개소 이후 전남 저작권 침해사발 발생건수가 센터 개소 전인 2014년 대비 60% 이상 감소하는 등 저작권 핵심 거점기관으로서의 공정 문화 생태계 구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오지현 기자



행복

위에 지은 집! GOLD CLASS

골드클래스에서 사업 파트너를 찾습니다

"개발 사업 부지를 확보하고 계신 분"
"개발 사업 부지를 증계하고자 하시는 분"
"소유하고 계신 부지의 개발 파트너를 찾는 분"

성공을 위해 함께하는 골드클래스가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 골드클래스(주) ☎ 보광종합건설(주)

- 문의 : 062) 233-3999 (내선 500, 503) 010-3637-3735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101(화정동)